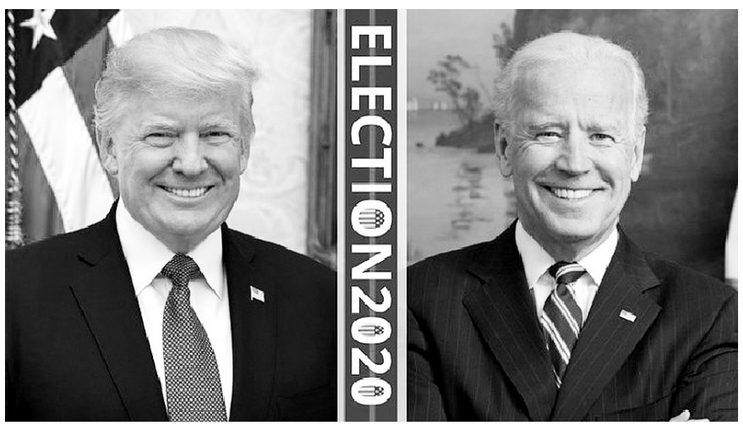
미 대선 개표지연 '혼돈'… 서로 승리 주장만

트럼프 "우리가 이겼다"
바이든 "승리로 가고 있다"
우편투표가 핵심 쟁점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미국이 3일(현지시간) 대선을 치렀지만 개표 지연으로 당선인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로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연출됐다.

일부 경합주에서 우편투표 급증에 따라 개표 지연이 빚어진 데 따른 것으로, 미국이 당선인 확정 문제를 놓고 혼돈을 겪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개표 방식이나 결과에 불복하며 소송전에 나설 경우 합법적 당선인을 한동안 결정하지 못하는 '당선인 공백 상태'마저 발생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의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주 중 5개 주에서 앞서고 있거나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다.

북부 경합주인 '러스트 벨트' 3개 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12.7%포인트(74% 개표기준), 미시간 7.5%포인트(72% 개표기준), 위스콘신 4.0%포인트(81% 개표 기준) 앞서고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경합주인 '선 벨트' 3개 주 중 플로리다에서는 승리했다고 예측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후보는 선 벨트 중 애리조나 1곳에서 승리했다는 보도들이 나온 상태다.

문제는 러스트 벨트 3개 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지만, 아직 승리를 선언할 정도로 개표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3곳은 선 벨트 3개 주와 달리 우편투표의 신속한 개표를 위한 사전 작업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다.

따라서 투표 종료 후 현장투표를 먼저 개표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우편투표와 현장투표를 같이 개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우편투표는 참여자가 급증했지만 봉투 개봉, 서명 확인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해 일반 현장투표에 비해 개표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우편투표는 바이든 후보의 지지층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개표율이 올라갈수록 트럼프 대통령과 격차를 줄일 공산이 커 외신들도 러스트 벨트를 경합지역으로 분류하고 승리자 예측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2012년 대선 때는 선거 당일 밤 11시20분, 2016년에는 선거 이튿날 오전 2시 20분께 당선인 확정 보도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선거 이튿날 오전 4시 20분이 넘도록 개표가 계속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대선 후 3일 이내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키로 해 개표 완료를 더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각자 입장을 내고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이겼다고 우기는 전례 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0시 40분쯤 입장을 발표하고 "우리는 지금 상황에 대해 좋다고 느낀다"며 "이번 대선의 승리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입장 발표 직후 자신의 트윗에 "우리는 크게 이기고 있다. 하지만 그들(민주당)이 지금 선거를 훔치려 한다.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말아야 한다. 투표소가 닫으면 투표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입장 발표 자리를 갖고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제주, 그린뉴딜 분야 선도해달라"

제주서 '지역균형뉴딜포럼'
"전국 협력 사업 추진 필요"

제주에서 열린 '지역균형뉴딜포럼'에서 전국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제주 초광역 뉴딜사업(안)이 제시됐다.

4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국가균형발전위원회·제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제주권역 '지역균형뉴딜포럼'이 열렸다.

이날 엄상근 제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부장은 세부 발표에서 전국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초광역 뉴딜사업 추진방안으로 전기자동차 특구, 스마트팜, 프리미엄 화장품 등의 육지부 연계, 남해안벨트 연계(제주 해양경제특구 조성 협력사업, 남해안벨트 해상풍력 클러스터 협력사업, 남해안 청정해양 보존 협력사업) 등에 대해 제안 발표했다. 전국권 연계로는 남북 평화크루즈 운영 협력사업과 한반도 해상물류 연계 협력사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주 전기차 특구 협력사업의 경우 강원(원주·횡성)의 전기차 생산, 충북(충주·제천)의 자동차 부품, 전남의 전기차 생산 및 기술개발의 강점과 제주의 전기차특구(연관산업육성, 창업 지원 등)의 강점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그린뉴딜 분야의 최선두 지역으로 한국판 뉴딜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역에서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지역균형뉴딜사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중앙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예산결산특위 정책질의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갔다.

이튿날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가는 예결위는 오는 9~10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심사, 11~12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로 짜인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예결위에서 제주 국비 확보에도 나선다.

특히 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제주계정의 규모 확대를 위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 검토도 이번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계정의 규모 확대를 위해 정률제(3%)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균특회계에서 제주에 배분된 예산은 2008년 5%에서 지난해에는 2.8%까지 떨어졌고, 2021년에는 2.2%대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성평등 문화 제주에 깃든다 (3) 성평등 마을 규약 제정사업

제주도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마을 규약만들기 사업을 통해 성평등 마을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공

마을에 부는 성평등 변화의 바람

마을규약 만들기사업 추진
의사결정권, 여성에도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는 전국 최초로 성평등 마을 규약을 제정하고, 마을의 중요사안에 대해서도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제주 양성평등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마을 규약 만들기사업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마을의 특수성과 자치권을 존중하면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여성들도 마을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자는 관점에서 시작된 이번 사업은 도내 여성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선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3리 마을은 전국 최초로 성평등 마을규약을 제정하며 마을의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여성 참여를 보장했다.

규약 제정 이전에는 가구당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보니 보통 가정에서 입김이 센 사람인 '남성'들이 주로 투표권을 행사했고, 또 마을내에 부녀회장을 제외하면 마을회의 주요 직책에서는 배제되는 등 여성의 참여율은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신도3리 마을 규약은 투표권부터 수정됐다. 기존 '가구당 1표'로 돼 있던 의결권을 '1인 1표'로 바꿔 마을에 주소지를 둔 성인은 누구나 마을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상시 의사결정기구인 개발위원회 등 마을 임원 조직 구성시 여성 비율을 ⅓로 명문화했다.

마을에 성평등 마을 조약을 제정했을 뿐인데 활력이 돋기 시작했다. 마을 규약 제정의 핵심은 여성도 마을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갖자는 것이지만, 사실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자는 데 있다. 특히 주민들 스스로가 성평등 관점에서 마을 규약을 되돌아보고 불평등한 부분은 수정·보완하면서 중장년 남성 위주로 돌아가던 마을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 성평등과 관련한 선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지난 9월 3일 신도3리 마을주민들은 단체로 제주도로부터 '양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도3리와 더불어 제주시 한림3리 마을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남성 위주의 기존 마을규약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평하고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대폭 수정했다. 또 서귀포시 신산리 마을은 현재 마을규약 개정 TF팀을 구성해 성평등 마을규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제주지역 전역으로 불기 시작했다. 지난해 신도3리, 한림3리, 신산리 마을이 사업에 참여한 데 이어 올해에는 신도1리, 금악리, 대평리, 월정리, 난산리 등 총 5개 마을이 시범 마을로 지정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진희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은 "지난해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3리를 비롯해 3곳이 참여했고, 올해는 금악리를 포함해 5곳으로 확대되는 등 성평등과 관련한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2년 전 성평등정책관 부서가 신설되면서 꾸준히 변화가 추진되고 있고, 평등규약이 확산될수록 제주 농촌도 달라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광산김씨 한란지파(치용)조 문중회
임시총회 개최 안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가 제현님 안녕하십니까?
오곡이 풍요로운 만추의 계절에 일가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본 문중회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 시 : 2020년 11월 8일(일) 오전 11시
■ 장 소 : 구좌읍 송당리6길 10호 신화아부오름식당
■ 의 안
1. 송당리 345번지 치용조 위토전 매각 처분 결과 보고
2. 치용조 위토전 매입의 건
3. 기 타

2020년 11월
광산김씨 한란지파 문중
도유사 창 봉
(010-2697-0464)
※ 마스크 꼭 착용바랍니다.

사단법인동려공고 2020-1호
사단법인 동려 이사장 후보자 등록공고

사단법인 동려에서는 사단법인 동려 정관 제28조, 동려 운영규정 제21조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동려 이사장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합니다.

다 음

○ 응모자격
정회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하고 회비를 완납한 자로서, 이사 또는 감사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 구비서류
① 후보자등록서 1부.
② 이력서 1부.
③ 법인 경영 계획서 1부.

○ 등록일시
2020. 11. 5(목) ~ 11. 25(수)

○ 등록장소
사단법인 동려 사무국

○ 문의사항
사단법인 동려 사무국(T.064-752-7543)

2020. 11. 5.
선거관리위원장 양상일

당일생산! 당일발송!
통영 청정바다 생굴
믿을 수 있는 통영굴수협
정식등록 지정중도매인23번!
도매업인데 비싸서 되겠습니까?
더 이상 비싸게 사지 마세요!
품질 좋은 최상급 생굴을 부대비용을 줄여
저렴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신있습니다! 가격 부담을 낮춰 드리겠습니다.
최상급 생굴 5kg 小 中 大
최상급 생굴 10kg 小 中 大
생굴을 먹을 수 있는 철이다! 굴~ 하면 통영이다!!
겨울철 바다의 싱싱함을 그대로 집에서 맛볼 수 있는
산지직송 통영굴이 택배로 배송된다!
주소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49-1 청정수산
계좌 : 수협 776-62-037473 이선곤
주문전화 010-2110-8506 / 010-3551-2352
당일 시세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부담없이 가격 문의주세요

예언의 집

운세, 운명을
기도(도법)로
정성으로
풀어 드립니다.
직접상담
010-5736-6951